

# 병영실습 훈련이 부사관과 학생들의 임관에 미치는 영향★

정재극\*

## 요 약

육군본부와 협약체결된 부사관과 학생들은 군부대 교육환경 및 교육진행 방법을 실습하고 병영실습훈련을 통한 부사관에 대한 인식 고취와 미래 군 간부의 자긍심을 습득하고자 연 1회 병영실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중점으로는 안보의식과 부사관 자긍심 고취, 병 기본훈련 숙달, 군인기본자세 확립에 두고 있다. 병영훈련실습이 만족스러워야만 부사관으로 임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부사관과 학생들의 교육만족은 미래 부사관으로서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며 교육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가 임관으로 이어질 때 병영훈련실습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Army Field Training and the Affect It Has On the Commissioning of Students Who Hope to Become NCOs

Jung, Jae-Keak\*

### ABSTRACT

Students in the NCO department who have concluded the agreement with army headquarters, exercise camp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method on how to carry out the educa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n NCOs and obtain pride as a future army NCO, army field training is held once a year. The stress on the educ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awareness, proficiency in basic army training, awareness of NCO pride, and basic posture as a soldier. The demand for commissioning only those with satisfactory army field training results is becoming stronger. The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 states a clear goal as a future NCO. This army field training has a meaning when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 trainee leads to a form of commissioning.

**Key words :** Soldier, NCO, Training, Education.

접수일(2014년 4월 30일), 수정일(1차: 2014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2014년 5월 24일)

★ 본 논문은 수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 1. 서 론

우리나라 군대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고 국가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추진과제 중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군 간부 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부사관은 종전의 지휘관 보좌와 지원업무 등 수동적이고 책임기능 결여된 역할에서 소부대 전투지휘, 병사 교육 등으로 그 위상이 전환되고 인력규모도 2015년 7만 4천여 명, 2030년에는 육군 정원의 30%인 12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부사관은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력과 체력, 정신력, 군사지식 분야에서 장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1]

육군과 협약을 맺은 전국의 부사관과는 2014년 현재 51개 대학이다. 비협약대학 까지 합하면 약 80여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최초로 부사관과가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사관 선발인원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 간부로서의 자부심과 직업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군 출신 예비역 영관장교 또는 상,원사 부사관 중에서 육군의 추천으로 대학교수로 임용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군사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병력감축으로 첨단장비의 운용과 함께 미래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전력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 전투력을 발휘할 만한 시기에 전역을 하는 병사들을 대체할 대안은 부사관이며 이들의 능력이 우리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에 우수한 부사관 육성의 중심에 학군협약대학 부사관과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는 일반, 전투, 기술, 특전, 화학, 의무, 공병 병과별 특성을 고려한 부사관과를 전문대학과 협약하여 개설하고 있다.[2]

군과 협약된 대학은 군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하여야 하며 이 중에는 병영실습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군사학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협약대학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병영실습훈련은 학생들에게는 군에 대한 적성이 맞는지, 혹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빨리 부사관을 포기할 수 있는 진로선택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매년 대

학교에 따라 상이하지만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1학년만 훈련에 참가시키는 이유는 협약시 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과의 협약체결서에 명시된 병영실습은 연 1회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지역 부대와 육군부사관학교 및 학생중앙군사학교로 각 학년별 병영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3박4일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차 병영 훈련 참여대학과 훈련 학생을 대상으로 병영실습 훈련시 중도포기를 고민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당 대학의 임관율의 차이와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2013년도부터 육군부사관학교 교관과 학교 담당자,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부사관과 담당 장교와의 면담을 통하여 부사관과 졸업 학생 등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병영실습 실태와 최종입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입관은 군에 대한 구분 없이 3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부문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용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자료와 면담은 훈련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 2. 병영실습훈련실태와 부적응

### 2.1 훈련실태

육군본부와 협약 체결된 부사관과 학생들은 군부대 교육환경 및 교육과목을 실습하고 병영실습훈련을 통한 부사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 군 간부의 자긍심을 습득하고자 연 1회 병영실습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 중점으로는 안보의식, 부사관 자긍심 고취, 병 기본훈련 숙달, 군인기본자세 확립에 두고 있다.[3] 훈련 간 필요한 교관과 조교, 장비와 물품은 부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 용품만 지참하고 훈련에 임하면 된다. 육군부사관학교 교관 및 기간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병영실습훈련이 군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응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부사관으로서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병영실습 훈련시 교육시설과 내용에 대해 사전 숙지하고 입대하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표 1> 2014년 1차 병영실습훈련 인원현황

대학	가톨릭상지대	동부산대	마산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한국관광대	해천대	계
인원	42	126	85	48	49	83	90	523

훈련대상 학생들은 3박4일간 훈련일정을 완료하였다. 병영실습훈련에 대한 각 대학 인솔교수들의 토의 결과 긍정적인 측면은 정신이 깨무장되고 군인 기본 자세를 습득하여 절도 있는 행동을 하는 등의 외형적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훈련 후 자퇴를 결심하는 학생은 1학년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학생들은 훈련후 부사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병영실습훈련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의 길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병영실습훈련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역할도 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2 부적응 실태

### 2.2.1 단체생활 부적응

병영실습 훈련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편식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가 나오는 식단임에도 밥을 먹겠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 물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학생은 훈련간 퇴교를 하고 말았다. 여기서 퇴교는 학교에서의 자퇴를 의미한다. 또한 화장실, 세면장, 취침시설, 아침, 저녁집회행사에 이르기 까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적응 발생원인은 개인위주 가정환경,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고 결국 군인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2.2.2 계급사회 부적응

군부대 입소 후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행동에 대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항상 교관 또는 조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은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보니 자율성이 사라지고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된다. 더구나 계급에 따라 나의 위치가 가장 아래라는 생각은 사회생활과 비교하여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 2.2.3 체력부족

육군부사관학교 양성과정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구보를 실시한다. 조금씩 늘러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체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강한 체력단련 이미지는 체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력이 단시간내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체질의 체력저조 학생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2.2.4 훈련부적응

병영실습 훈련간 육군부사관학교에서는 일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3박4일의 훈련기간 동안 다양한 실습이 되도록 계획한다. 한 과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여러과목을 소개하면서 실습을 병행하였지만 야외에서 훈련을 받는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신체적 특징에 대한 걱정을 가장 크게 꼽았다. 즉 여학생의 생리적 심리변화, 기후조건 등이 훈련에 제한사항이었다. 특히 열외의식이 강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거부반응은 훈련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빠듯한 훈련일정은 훈련에 여유가 없어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

## 3. 육군부사관학교 훈련실태분석

부사관으로 임관시 요구되는 능력은 분대 전투기술 및 전투지휘능력과 병 기본훈련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분대편제화기 조작 및 지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사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사격 기술이 요구된다. 부사관 양성과정에서의 교육목표는 부사관 기본소양과 기본 전투기술 구비, 분대리더십 배양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본전투기술 및 분대전투지휘능력, 병 기본훈련 지도능력을 구비한 부사관 육성에 있다. 이를 위한 중점으로 군인정신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병 우위의 체력구비, 병 기본훈련 및 전

투기술 숙달, 기초 리더십 이해 등이다.[4] 부사관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표 2>와 같다.

<표 2> 부사관으로 요구되는 능력

기본전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과목 행동화 숙달</li> <li>· 강인한 전투체력</li> <li>· 절도있는 군인 기본자세</li> </ul>
전투지휘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대전투 지휘능력</li> <li>-계획수립, 명령하달, 지휘/통제요령, 분대전투대형, 이동대형 적용/통제</li> <li>· 리더십(지휘통솔 및 단결심, 전장 리더십)구비</li> <li>· 교육 및 지도 가능한 확고한 정신무장</li> </ul>
교육훈련지도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기본훈련 지도방법 숙달</li> <li>-사격훈련지도/ 통제요령숙달</li> <li>· 병영생활 지도요령 숙달</li> </ul>

육군부사관학교에서는 2014년도 부사관과 학생대상 병영실습훈련을 위해 2개 양성교육대를 준비하였다. 양성교육대는 부사관 후보생들이 임관 전 교육을 받는 곳으로 장차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할 부사관과 학생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교육시설인 것이다.

<표 3> 일정별 교육내용

구 분	교육 내용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부사관 소개</li> <li>· 지휘관과의 대화</li> </ul>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격체조</li> <li>· 나라사랑 콘서트</li> </ul>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기본훈련(제식, 독도법, 구급법, 화생방)</li> <li>· 체력단련</li> <li>· 쫓붙의식</li> </ul>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태세 / 고지정복</li> <li>· 교관과의 대화</li> <li>· 퇴소식</li> </ul>

### 3.1 1일차 훈련

1일차 훈련은 오전 11시 입소식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나무반을 사용하게 한 방법은 보완이 필요하였다. 군에서 부사관으로 만날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를 알게 할 기회를 활

용하지 못하고 훈련을 마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나무반에 각 대학 학생들로 편성해 놓아야 다양한 정보도 교환하고 소속 부사관과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일 기회를 상실하였다. 예년에는 실시하지 않던 나라사랑 콘서트를 저녁에 참석 시키는 등 1일차 교육은 군에 대한 위상 제고와 국가와 군대의 필요성, 그리고 그 군대에서 부사관의 역할을 견지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3.2 2일차 훈련

2일차 훈련은 06시 아침점호를 시작으로 유격체조, 기초 장애물 코스를 순환식 교육으로 진행 하였다. 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인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신체적 극한사항을 경험하였지만 일부 부상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지 않는 학생은 교육시간마다 열외의식이 강했다. 기초장애물 훈련은 순환식 교육을 통해 전 학생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훈련 간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차와 의료진이 현장에 위치하였다.

### 3.3 3일차 훈련

3일차 훈련은 도수제식, 독도법, 화생방, 구급법 교육을 순환식으로 실시하였다. 제식훈련을 1일차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화생방 실습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신청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한 장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 실물 무기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석식이후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한 프로그램은 유익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학교생활을 한 선배가 임관하여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통해 미래의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3.4 4일차 훈련

4일차 훈련은 기상과 동시에 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였다. 처음해보는 훈련에 어리둥절하였지만 전시에 해야 할 행동절차에 대해 경험해 봄으로써 투철한 군

인정신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오후 14시 퇴소식 이후 학교장의 정신교육은 대학생활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발하였지만 오후 늦게 일정이 끝나 원거리 학교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였다. 오전에 모든 일정을 완료하고 중식 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추후 교육계획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5 소 결론

육군부사관학교 양성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중점을 병영실습훈련과 비교하여 보면 주마간산 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였고 신분상 민간인을 군인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 등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군에서 어떤 부사관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첫날 교육시 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군사학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교육은 부사관과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군인이 되기 위해 자발적 목표의식이 분명해 질 것이기 때문에 부사관의 꿈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4. 훈련이 임관에 미치는 영향

병영실습훈련이 긍정적이어서만 부사관으로 임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부사관과 학생들의 교육만족은 미래 부사관으로서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한 결과가 임관으로 이어질 때 병영실습훈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협약대학들이 2학기 까지 병영실습이 계획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석이 제한되는 부분은 있지만 금번 훈련에 참가한 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3> 2013년 학교별 임관 현황(입학정원은 2011년)

대학	가톨릭상지대	동부산대	마산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한국관광대	혜천대	계
입학정원	50	126	110	55	40	33	90	523
임관	28	96	63	38	25	19	61	330
비율	56	81.6	57	69	62.5	57.5	68	63.5

<출처 : 임관 현황과약 대학 유선인터뷰>

<표 3>과 같이 임관율을 조사한 대학을 분석하여 보면 대학별 임관율의 차이는 여학생 입학인원과 비례되고 있었다. 여학생이 재학 중 성적도 우수하고 중도탈락 없이 생활하였지만 여군은 연 2회 선발하는 육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군 5개 기수(군장학생 포함)보다 모집기회 및 선발인원이 적기 때문에 임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중도 탈락율이 10% 정도이지만 병영실습훈련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중도탈락 하는가에 대해 병영실습중인 대학 교수들과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없거나, 또는 1-2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병영실습훈련은 학생들에게 군부대 안에서 현장 실습을 해봄으로써 중도에 탈락함이 없이 임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며 대학에서 지도하고 있는 군 관련 과목이 군부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었다.[5] 2014년도 협약대학 부사관과 병영실습훈련 1차 인솔교수들과의 회의에서도 병영실습훈련은 꼭 필요한 과정이며 금번 교육시 보완할 부분을 차후훈련시 반영하여 실시한다면 매년 발전적인 병영실습훈련이 될 수 있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결 론

군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 간부 중심의 군 인력구조의 전환 노력 등으로 부사관이 지휘자로서의 전투지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부사관과와 협약체결을 2022년까지 61개 대학, 4,190명으로 확대하고 학생정원의 60%까지 임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 정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획득이 제한되는 병과 와 잉여인력양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노력은 숙련된 인력의 장기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우수인력 획득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 통합전투력의 발전은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역할, 직무수행능력, 복무여건, 사기, 복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관할 부사관과 학생들에게 병영실습은 군생활의 적성과 기대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병영실습 교육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전투기술 습득의 일환으로 실사격 훈련을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다. 부사관과 재학생인 학생이 병영실습 훈련을 하면서 총도 만져보지 못하고 사격도 해보지 못한다면 나라사랑 캠프의 중·고등 학생들과 다른바가 없을 것이다. 군 간부가 되겠다고 부사관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한하여 사격훈련은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화력시범을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무기에 대한 실물과 파괴력을 확인함으로써 군 무기에 대한 흥미와 병과 선택에 대한 폭도 넓게 하여 줄 것이다. 사회에서 보기 힘든 화력에 대한 이해와 군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셋째 실습훈련에 대한 선행학습이 있어야 한다. 이는 대학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을 영상자료의 설명 없이 영내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자료를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에서는 선행학습 후 병영실습훈련에 참여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독도법, 분대전투 공·방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입대하게 되면 민간 부사관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군 교수들은 이와 같은 과목에 대해 강의가 가능하고 학교 환경에 따라서는 실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상 및 관련교육자료 등을 보안성 검토를 필한 다음 공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56만 명인 대학정원을 2024년까

지 40만 명으로 줄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종 방안이 확정되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부사관과 학생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올해부터 학과의 인원감축을 통보하였고 이는 우수부사관 획득에도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각 군의 인력획득 정책부서 관계자와 대학들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병영실습 훈련은 군에서도 요구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병영에서 실습훈련을 한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부대에서는 실천적인 실습훈련이 되도록 발전적인 의견들을 협약 대학들과 교환하여 교육에 반영한다면 군에서는 안정적이고 준비된 부사관 확보, 대학에서는 재학생 유지와 임관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용은. “부사관 교육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와 군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p5-9, 2013.
- [2] 김정수. “학군사관후보생의 임관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8-12, 2012.
- [3] 홍지복. “정보화시대 군 초급부사관 교육훈련발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pp12-13, 45-46, 2012.
- [4] 이태희. “미래통합전투력 향상을 위한 부사관의 능력향상과 조직만족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13-20, 2013.
- [5] 김영종. ‘우수인력획득을 위한 육군부사관제도연구’ 융합보안학회지, 제13권제2호제2권, pp112-120, 2012.
- [6] 한국국방연구원, ‘전투형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부사관 역할 재정립’, p.47, 2011.

---

[저자소개]

---



**정재극(Jung, Jae-Keak)**

2003년 육군대학졸업  
1996년 건국대학교 행정학석사  
2013년 한남대학교 법학박사  
2011년 ~ 현재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e-mail : kuk2934@naver.com